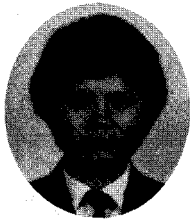


젊은 축산인은 이렇게 말한다

계열화가 되어야 양계산업 발전케



김 대 환
한국사료항미양행

우리의 양계산업은 규모 발전에 비해 산업의 안정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만큼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기간동안에 수백년에 걸쳐 이룩한 외국의 사양기술을 도입 비약적인 발전은 하였으나 불황은 예측하기조차 어렵게 발생하고, 약간의 입식과열만 나타나도 산업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불안해짐은 결국 기반자체가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말은 시장조사를 거친후 사업에 착수하기 보다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하면 나또한 뒤질세래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연관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중 육계산업의 경우에는 소비유통부분의 약한 구조적 특성이 무엇보다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종사자들이 자기의 산업을 위한 과감한 공동해결 방안을 위해 단결해 나가야 한다.

어떤 주체를 통해서건 계열화가 체계화 되어야 할 일이 급선무라 본다. 생산자들이 자기가 사육한 닭고기를 쉽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연관라인을 구축해가면 되는 일이다. 이때 나타나는 일로써 전체를 위하다 보면 약간은 손해를 본다거나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일이다.

양계산업의 취약성은 바로 단합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비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대심리에 의한 생산경쟁만이 있어 결국은 생산자 스스로가 빼앗고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소비시장의 확보를 통한 생산량을 결정하는 산업구조 형성이 시급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열화가 되어야 하는데 계열화란 기업운리가 발전하지 못하면 성숙될 수가 없다.

당국의 정책입안부터 측면산업에까지 그리고 하부 유통부분까지 모두가 양심적인 행동이 저절로 발휘될 때 달성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제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자유화를 실시한다거나, 자사(自社)만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사료의 외상판매가, 그리고 판매망에 의한 유통업자의 횡포가 가장 큰 발전 저해 요인이 아닐 수가 없다. 사료외상판매의 지나침은 생산자 개인의 도산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사회적인 나아가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계열화를 이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가 있다.

계열화가 이루어져 생산기반이 안정되면 전체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홍보사업이 필요해질 것이다. 지금과 같이 생산은 자기가 하고 홍보사업은 내가 아닌 남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우선은 나를 중심으로 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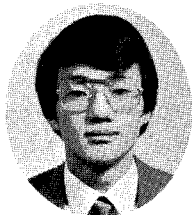
만큼의 기금을 조성하고나서 시행사업비가 모자라면 연 관업체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몰라도 이에 소비홍보는 생산자와는 별개라는 식의 이해심리는 없어져야 하며 하루속히 생산자에 의한 소비홍보사업이 이루어져 더 소비된 만큼 생산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계열화가 성숙되어 기반이 튼튼해지면 생산자는 그야말로 과도한 입식경쟁에서 생산비절감경쟁으로 전환해갈 것이다. 으레히 관 주도 형으로 계열화가 이루어진다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생산자가 필요해서, 가기의 사업을 위해서만이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튼튼한 기반 조성이 실현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희생정신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 산업이 안정되는 길은 소비시장의 확보인데 이 소비시장이 안정되어야 생산비절감에 모두가 전력해나가 결국 참다운 산업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양계인은 불황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투기식 경영에서 벗어나야 하며 창간 18주년을 맞이하는 「월간양계」는 이점을 중시하여 여론조성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양계인**

일괄성있는 유통 질서확립이 아쉽다



윤 정 암
천호인티육가공부

1960년대초 육계가 한국에 선을 보인후 그 나름대로의 성장을 하여 현재 전국 70여개소의 도계장에서 성수기 약85만수, 비수기 약65만수를 생산, 공급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국민 경제의 발달에 따른 식생활양식의 변화로 선진외국에 비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요를 창출해 나갈 여지가 많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간

여러 책자와 홍보자료를 통해 육류중 닭고기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아직 육류소비비율을 볼때 위생적 생산, 유통의 코드체인화,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해 계육의 소비 촉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미 여러 양계관련인들의 폭넓은 소비촉진의 대책과 방안이 대두되고 시행되었으나 작금의 육계시장 실태를 불라치면 내년의 '88올림픽이나 경제수준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그 답답함을 면할 수 없다. 부족하고 그나마 정확하지 못한 수요, 유통자료, 아직 행해지고 있는 생계유통, 일괄적이지 못한 유통처리 등 해결해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음에 양계인의 더욱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양계관련인의 냉정한 자기성찰과 단합된 노력으로 스스로 먼저 변화하여야 소비자를 제도할 수 있으며 스스로 수요창출에 노력해야 뒤떨어진 양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1. 생산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탁도계와 자체도계의 70대30의 비율을 점차 자체 도계의 형태로 변화시켜 단순한 생계 도살이 아닌 생산, 가공, 유통 통합체제인 양계산업 계열화(인티그레이션)로 자체상품의 생산으로 상품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현실태에서 그보다 앞서 적정선의 위탁 도계수수로 확보, 소비증대로 인한 과다경쟁 배제로 가동을 증가 시설 근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상품력 증대를 꾀해야겠으며 이를 위해 밀도계 및 부정도계 유통근절과 국가적 측면에서의 재정적, 제도적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상품력 향상 및 육가공품 개발

대부분 영세 도계장의 시설 미비 및 불충분한 물 사용, 수질오염, 냉각부족, 야간의 집중도계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도계육의 상품력 감퇴는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의 닭고기 구매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바 자체검사원의 엄격한 실질적 품질관리 및 체중별, 등급별, 부위별 등급화된 제품을 4℃이하로 충분히 냉각시키고 제품의 질을 보증하는 상표가 표기된 포장재로 포장, 냉장냉동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울러 일반소비자의 구매시점에서 포장지내의 핏물, 내용물의 불투시성, 허술한 포장방법, 불편한 휴대로 인해 오히려 포장된 제품의 구매 기피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포장디자인, 핏물을 흡수할 수 있는 패드가 있는 포장재, 포장방법 등 포장에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에의 계절적 소비편중과 안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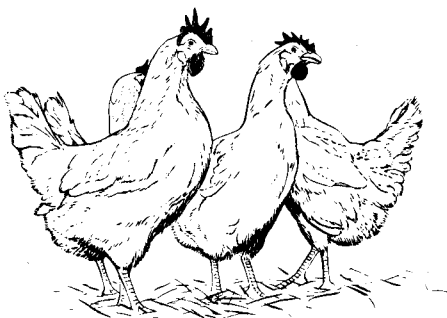
날개에 비해 복채와 다리부위의 부위별 소비편중경향, 간편식 애용연령별 기호차이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육가공품 개발 및 손쉬운 요리의 개발·간단한 취식법이 필요하며 각종 요리 강습회와 각 관련기관, 협회의 장기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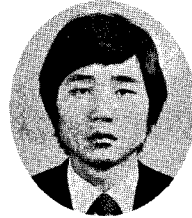
아직도 일부 소비자는 계육에 대해 편견 즉 육용으로 전문적으로 키운 닭과 노계 폐계를 혼돈하여 보편적으로 타육류에 비해 불결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비포장 제품과 휴대시 핏물로 인해 상당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고치고 소비충출을 위해서 일반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규격별, 중량별, 부위별 등급이 식품포장에 적합하며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포장재에 표기되어 상표안으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등급화와 상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출고된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도달할 때까지 신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 유통 경로를 갖추어야 함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으며 보다 많은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확보하고 청결하게 진열하여 소비자가 주위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해야 보다 많은 소비자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이제는 소비자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1987년 7월 1일부터 닭고기 통조림이 수입개방되었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계육유통시장과 이제 걸음마 수준인 계육가공수준을 감안하면 이 또한 염려되며 앞서가는 소비자의 수준에 뒤떨어져 그저 전근대적 상태로 선진식품산업의 낙오산업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양계산물 관련인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실천 노력하여 보다 나아가 소비자를 제도하는 길이 우리 양계관련인의 당면한 막중한 과제이다. **양기**



축산업에 전문매체가 해야 할 일



민 병 호
축산신보

국내 축산업은 1960년대 양계산업으로부터 시작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 자급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에 힘입어서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 시기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61년도에 2천5백50만명이던 것이 86년도에는 4천1백만명 정도로 급증, 국민 1인당 GNP도 79년도에 이미 육류소비량의 지표가 되는 1천5백달러를 훨씬 넘어 86년엔 2천3백달러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인구와 1인당 GNP는 91년도에 가서 각각 5천만명에 4천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산되어지며 이와 함께 GNP에 대한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동력의 상공분야 집중현상으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61년도에 38.7%인 것이 81년도에는 18%, 86년 13.7%, 91년도에는 10.5%가 될 것으로 보아 이 가운데 축산업만은 91년에 전 1차산업중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경제의 획기적인 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급증한 까닭도 있겠지만 국민의 체위향상과 식생활개선 수단으로서 축산물의 영양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같은 축산물이 국민식생활과 밀접하면서 축산업에 언론에 대한 역할 또한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술은 국제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양적 질적성장을 가져와 최근엔 과잉생산에서 오는 축산업의 수급조절이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축산업에 언론매체의 필요성은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면서 그 역할 또한 중요성을 갖게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업에 귀와 입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로 축산관련언론매체들의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흥수같이 밀려드는 정보를 일괄성있게 처리하여주는 역할은 언론매체만의 기능에서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의 전문언론분야의 연륜은 헛병아리 수준과 축산인의 참여도가 결여된 현실에서 성장과 도기를 맞고 성장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실정은 누구도 부인 못할 일이다.

이같이 축산업에 전문매체가 성장속도가 늦은데는 여러가지 원인과 여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지 인식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다.

여기에는 언론매체들의 각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관련업체들의 진보적인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축산업의 급격한 성장과는 달리 언론매체들의 중요성은 아직까지 잘 인식이안된 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생산에만 주력한 나머지 시장경제의 원리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도 있다.

즉 양축가들은 축산물의 생산에서 끝나므로 유통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 상표를 생산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이 들쭉날쭉 할 정도로 수급조절과 유통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전문매체를 활용한 업계의 발전은 오늘날과 같은 축산업의 불안정을 일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어 과거의 주먹구구식사육으로 수요추정을 고려치 아니한 축산업은 발전보다는 퇴보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매체는 그같은 실정을 감안 새로운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수요공급이 맞는 축산물의 밸런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업계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사회의 민주화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축산언론매체도 민주화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언론 매체도 우리가 어떤 언론체계를 가질것이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정치 사회체제를 가질것이나의 문제로 이어진다.

말갈이 통제되고 제한되고 닫힌 사회는 필경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언론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하는 열린 사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게 된다.

때문에 이른바 언론정책은 모든 정책이라고까지 극언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언론호름을 주시해왔던 것도 다른 뜻에서가 아니다. 그들이 민주화의 실천의지를 보일 때 우리 전문지들도 민주화 대열에 설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발전과정 가운데 언론의 중요성은 한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그 맥을 같이 해오고 있다.

축산물이 5조원을 넘어선 작금에 축산의 민주화가 일고 있는 것도 축산전문매체의 다소나마 힘이 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의 보이지 않는 게임은 하루속히 탈피 건전하고 올바른 정도의 언론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실을 직시한 축산언론매체들의 획기적인 전향은 우리 축산인 모두가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나라 축산업에 뿌리깊은 나무를 심기위한 축산전문매체들의 활기찬 필봉을 기대해 본다. **양기**

수입확대 불가피 ...체질개선 시급

신 이 섭
(주)우성사료

60년대 이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수출 주도형 정책에 의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수출=GNP성장>이란 도식을 현실로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지난 해에 처음으로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는 대부분 對美 수출

에 의한 것으로써,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원화(貨)절상 및 시장개방 등 통상압력의 파고(波高)가 그만큼 드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계는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對美 무역마찰 해소법으로 원화절상을 최소화하여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대신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지지하였으며, 정부도 지난 7월 자동차, 컴퓨터 등 미국의 관심 품목은 물론, 88년에 수입 자유화하기로 예시된 품목중 상당 부분의 수입 자유화를 단행함으로써 현재 93.6%의 수입 자유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시행해 온 수입 조정 제도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온상속에서 자라온 국내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보다 통상 정책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최근의 개방정책에 의해서 자연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물에 까지도 시장개방의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축산업계가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는 과거보다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으로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축산업계가 산업 자체의 전반적인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지난 20여년간 국내 축산업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지만 물량적인 규모의 확대에 비해 그 질적인 성장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더우기, 그러한 양적 팽창도 기실(其實) 정부의 보호 우산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파고(波高)높은 외국산 축산물 수입이란 도 전앞에서 국내 축산업이 위축·도태될 것을 염려하기에 앞서 하루바삐 과감한 체질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이다.

업계 스스로가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을 한층 새롭게 하여 과감한 투자와 공동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차피 대다수 농축산인의 생활안정이 사회안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여건 아래서는 생산이나 가격, 나아가 축산물의 수입정책에 대한, 정부의 최근 일련의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축산업 전반을 두루 살펴 볼 때, 그 대부분이 수입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지꾸만 비대해 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수입자유화율이 93%가 넘는 개방화 시대에서- 더 이상 외국상품에 생경(生硬)하지도, 거북해 하지도 않는 소비자에게 유독 외국산 축산물만은 아직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서 그러니 안 살 수 없겠느냐고 간곡히(?) 호소를 한 들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을까?

해방 후 국내 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한 때 국산품 애용·외제 배격이 바로 애국하는 길로 인식되었던 때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와는 달리 우리 상품이 국제무대에서 성가(聲價)를 높이고 있고, 우리가 미국 등으로 부터 당하고 있는 시장개방의 압력도 어찌보면 우리가 남의 시장을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축산물의 시장개방도 보수적인 애국심에 호소하는 유치한 차원에서 보다는, 한층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당위성의 차원에서 점토되고,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외국 거의 모든 축산물에 대해 국내 시장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의도도 더 이상의 보호 정책을 탈피 하겠다는 데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내외(內外)의 모든 여건이 이처럼 험악하고 불리할 수록, 그것을 전 축산인들의 해안과 자조적(自助的)인 노력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나아가 업계 체질개선의 좋은 자극제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의연하고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과 양축가, 학자할 것 없이 상호 협조와 이해아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자구책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 만이 냉혹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 축산업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밝고 크지만 하다.

양계

